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5. 28.(화) 11:00 < 5.29.(수) 조간 > 배포 2024. 5. 28.(화)

제6차 한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 열려

- 발효 10년차 맞아 수출입 기업 편의 제고,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제6차 한-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위원회를 5월 28일(화) 서울에서 개최하였다. 이번 공동위는 지난 '20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, 우리 측 안창용 FTA정책관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그렉 앤드류스(Greg Andrews)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20여 명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였다.

한-뉴질랜드 FTA('15.12월 발효)는 올해 이행 10년 차로 뉴질랜드 측은 100%, 우리 측은 93.9%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높은 시장 개방을 토대로 양국 교역 증가*에 크게 기여하였다. 뿐만 아니라 FTA 체결 계기 합의한 농림수산협력약정 및 뉴질랜드 관광취업사증(워킹홀리데이) 인원 확대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.

* 발효 연도('15년) 대비 작년('23년) 우리나라 對뉴질랜드 수출은 126%(12.6억불→28.6억불), 한-뉴질랜드 교역은 84.8%(24.9억불→46.0억불) 증가

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-뉴질랜드 FTA 성과, 수출입기업 편의 증진 방안, FTA에 따른 협력 활동 등 양국 관심 현안을 논의하였다. 안창용 FTA 정책관은 "양국은 양자 FTA 외에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,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,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(DEPA) 등 다양한 다자 통상협정의 공동 당사국으로서 역내 자유무역 확산 및 보호 무역주의 기조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"고 밝혔다.

* 뉴질랜드는 영국('22.2월), EU('23.7월)와 FTA 신규 체결, 아세안·호주와 FTA 개선('23.8월)

담당 부서 <총괄>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	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	심주영 (044-203-5752)
			주무관	정희정 (044-203-57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